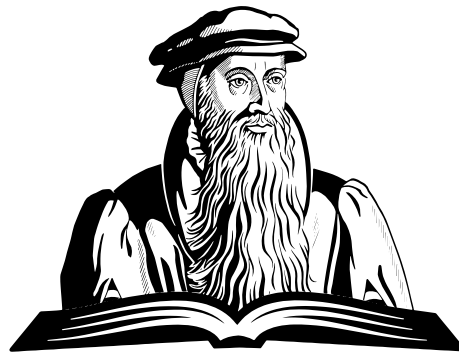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21: 회복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21

회복

강의 주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더 큰 약속 안에서 구약전서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본문: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15:16-18).

강의 스크립트 21

집으로 돌아오는 경험에 비교 될 수 있는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었으면 더 그렇습니다. 집에 도착하게 되면 익숙한 광경, 소리, 그리고 냄새가 여러분을 반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집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조차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주요한 지형물이나 익숙한 모습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했던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얼마는 이교적인 주위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곳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기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 망가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이가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떠났던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슬픔이 섞인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자신들이 알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의 마음은 기뻐했습니다. 시편126편을 읽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노래를 부르다가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편126:1,2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기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귀환에 있어서 주요한 지도자들은 누구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까? 귀환한 후에는 어떤 죄를 그들이 계속해서 범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경적인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학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안식일이 가진 영원한 적실성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구약의 예언에 있는 새언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 시대에 대한 우

리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21번에 걸친 구약에 대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구약역사는 두번째 출애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인의 구원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역사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터 그리고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와 같은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9:2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헌당예배에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상8:33,34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이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니엘9장의 기도는 진실로 성경의 표준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는 죄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죄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된 원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서 자신이 귀환하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는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첫 째로, 스룹바벨의 인도 하에 첫번째 그룹이 귀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영도 하에 귀환하였습니다. 에스더서는 아마도 이 두 번째 귀환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하나님의 약속의 지속적인 효력과 성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스라서에서 보듯이 이번 갱신도 역시 겸손과 하나님의 율법으로의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은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 시기에 예언을 했던 말라기의 지도 하에 이루어졌던 세 번째 귀환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하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회복과 갱신의 다른 패턴을 제공하셨습니다.

구속사의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상태에서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가셨던 가장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였을까요? 정답은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구하려고 데려가셨고 그 왕국을 보존하셨는데 이는 오실 메시아로 가는 길이 여전히 열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왕은 수백 년 후에 약속된 대로 나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둘째로, 이 시기의 신학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신학의 몇 가지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주요 목적을 이루고 앞 강의에서 본대로 자신의 구속을 펼치기 위해서 섭리가운데 전 역사의 과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유대인들이 유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칙령을 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자신의 종이며 동시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시온에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왕의 지위는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잠언21:1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 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의 과정을 조정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셨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셨으며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옮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 백성들의 마음과 삶에 여전히 동일한 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

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구약의 첫부분에서 발견했던 동일한 많은 죄를 여기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세요. 예를 들어,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셨던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뒤로 한참 가서 창세기6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때 이후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봤습니다. 또한 그들이 타락한 예배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 결과로 오는 모든 종류의 죄를 함께 거느리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라기는 그들의 외적인 신앙의 형태가 왜곡되었고 뒤틀어졌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는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자들, 그리고 타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말라기3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서 7:8,9는 두번째 돌판을 범했던 이러한 죄악들에 대한 또 다른 명확한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그들의 영적인 간음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문단에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하에 구약의 마지막 개혁이 있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정확하게 동일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은 율법을 읽으면서 시작되고, 죄에 대한 각성을 가져오며, 백성들이 회개하고, 세상과 분리되며, 하나님의 순결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순결한 예배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예로서 안식일의 역할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내용을 느헤미야에서 읽습니다.

특히 느헤미야13:15이하입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음식을 사고 팔고 상업적인 거래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외부인들에게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대면하였고 행정관으로서 예루살렘 내부와 근처의 모든 장소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13:18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있게 되는 앞선 심판의 한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시작과 마지막을 연결하고, 신약에서의 연속성을 위한 전례를 마련하기 때문에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안식일은 창세기2:2,3에서 창조의 규례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타락보다 먼저 일어났으므로 죄와 구속과는 상관없이 항상 적실성을 가집니다. 안식일은 결혼, 일, 그리고 번식과 같은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폐지되지 않듯이 안식일 제도도 폐지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주의 바로 그 구조 속에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안식일의 중요성을 명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는 출애굽기16:22-30입니다. 아담의 때에서부터 십계명 속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승인이 주어질 때까지, 안식일 준수의 흐름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십계명에 새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20장과 신명기5장에서 보시듯, 이 계명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러한 명령들은 본성적으로는 도덕적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으로서 모든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표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5:17-19에서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이 모든 시간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통제합니다.

칠일 가운데 하루를 따로 떼지 못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범죄하며, 간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것만큼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정통치 하에 있는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한데 대한 벌은 사형입니다. 출애굽기35절과 민수기15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논박할 것도 없이, 여호와께 대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구약에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것이 신약에서는 죄로 여김을 받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딱 고정되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도덕법을 범하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도 동일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사야58:13,14에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일상적인 일과 오락을 멈추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루 전체를 공적이고, 사적인 예배, 곧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활동에 쏟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듯이 안식일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자비의 일은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안식일 개념을 마주하셨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원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훼손되는 곳에는, 항상 영적인 쇠퇴가 있으며, 성경적인 개혁은 항상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역사적 시기에서 얻은 신학적인 진리들이 지금도 적절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을 강조해왔습니다.

셋째, 구약역사의 이 마지막 최종 단계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구속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안에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두번째 출애굽이 가진 불충분성은 뭔가 더한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4:2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5절) 신약성경을 펼쳐보시면 이 예언이 거의 400년 후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구약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준비를 해야 할수록 선지자들의 시대가 전체적으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가올 새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새언약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제공합니다. 구약 혹은 옛 언약과 새언약의 차이는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시행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본문은 예레미야31:31-34입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부분적인 이유는 히브리서8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은 새 언약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과 그 이전의 언약 사이에 있는 연속성입니다. 이 언약은 동일한 사람들, 곧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같은 율법, 곧 지금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같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며 또 우리가 한참 전에 배웠던 언약의 핵심인 약속도 같은 약속입니다.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이 둘 사이에 있는 연속성과 연결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새로운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내적으로 적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하고 충만한 용서를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상징이 아닌 실제적 용서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3장에서 새 언약이 가진 더 위대한 영광이 옛 언약이 가진 영광보다 더 탁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히브리서8-10장은 이 사실에 대한 기초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이 가진 탁월성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죄의 사함을 위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이 새언약을 승인 하십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1장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36:25-27은 정결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끗한 물을 뿌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주어질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새 언약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가올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성경이 예언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더 충분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잠깐 멈춰서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점을 요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 둘은 서로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기초가 되는 구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없이는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을 해석할 때에도 신약의 성취의 빛 아래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연속성, 동일성, 연결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구과정을 지나면서 보았듯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3:15에서 시작되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확장되어 새 언약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의 은혜언약에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본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구약과 신약은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바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과거의 이단들이 반복해서 가르쳤던 아주 파괴적인 오류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에서 변하지 않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 둘 다 같은 구세주를 계시합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와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신약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나타나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현대 이방인 신자들도 아브라함이 구속을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역사 전체에서 구원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의 장엄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도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은 두 개의 다른 시행체제 아래에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약속된 대로 신약성경에서 교회 이방인 신자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옳은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연속성에 대한 이 모든 요소는 성경 전체가 기독교 성경이며 우리는 이 전체 성경을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에 대한 계시로 알고 반드시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둘째로,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연구를 하는 가운데 불연속성에 대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와 신약과 구약에서의 은혜언약의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다른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미리 예언하고 신약은 그것을 성취합니다. 불연속성에 포함된 요소는 먼저 구약의 의식법에 관한 제도와 규정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희생 제사라는 의식적인 예배와 제단과 제사장과 같은 것들을 정결례와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을 금지하는 의식들과 함께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진 중요성도 역시 그것이 상징하던 실체로 대체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그림자들이 가리키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다시는 그림자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는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왕국의 확장되는 중요한 장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방인들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를 비롯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비율을 보면 훨씬 더 적은 이방인들이 언약과 구약의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구약이 주로 “와서 보라”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넓게 말하면 가나안 좁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정했습니다. 몇몇 외부인들도 여호와께로 와서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주로 “와서 보라” 모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가서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마28:19) 차이점이 보입니까? 이제 복음은 열방에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선교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주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들을 받은 이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과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방인 국가들은 제자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유업에 더하여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세계로 가라는 사명이 창세기의 처음 장들에서부터 계속해서 구약성경에 예고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신약성경에 맺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속성의 마지막 범주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서 오는 신약의 축복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훨씬 더 엄청난 분량의 성령 충만이 오순절에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의 도움이 없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훨씬 더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도 더 많은 확신을 누리고 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범주 안에 속하는 다른 많은 예시들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성경으로 만드는 지배적인 연속성이 있지만 우리의 연구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구약과 신약의 다른점을 의미하는 불연속적인 측면에 대한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역사와 신학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완료했습니다. 구약의 이 마지막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지평선을 너머 오실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속역사의 정점에서 계시하신 신학적인 주제들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